

자료제공 : 2024. 1. 17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

김만호

02-2133-8150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1쪽

도로관리팀장

원영구

02-2133-8152

### 서울시 17일(수) 오전부터 제설 비상근무...보도 등 미끄럼 사고 예방에 총력

- 17일(수) 오전부터 오후 사이 2.3cm 강설 기록...시, 제설 비상근무 돌입
- ▲인력 4,629명 ▲장비 1,068대 동원...제설제 살포 등 제설작업 총력
- 녹았던 눈과 비로 인한 미끄럼사고 우려...보도·이면도로 등 잔설·결빙 제거 지속
- 도로 살얼음에 따른 미끄럼사고에 대비, 교통 및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 당부

- 서울에는 17일(수) 오전부터 오후 사이 눈이 내려 서울관측소 기준 2.3cm의 적설을 기록했다. 시는 이날 눈이 내릴 것에 대비해 오전 8시부터 제설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했다.
- 강설이 집중되기 시작한 13시경 비상근무를 1단계로 상향하고 인력 4,629명과 제설장비 1,068대를 투입, 제설제를 2차례 살포했다. 이어 잔설을 제거하는 등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.
- 특히, 오늘은 녹았던 눈과 비가 얼어 생기는 도로살얼음으로 미끄럼사고 우려가 큰 만큼, 서울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보도·이면도로 등을 순찰하고 잔설·결빙 제거작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“시민들께서는 차량 운행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, 보행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하고 걷는 등 교통·보행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